

#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김예란\*\* · 김효실\*\*\* · 정민우\*\*\*\*

십대를 탈정치화된 문화소비자로 우려하거나 의식화된 정치 행위자로 친미하는 기존의 거친 이분법에 문제제기하며, 이 연구는 십대 소녀·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문화적 의미를 2008년 촛불광장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말걸기와 듣기를 통한 성찰적 방법론으로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십대가 일상적으로 겪은 고통과 불안의 감정이 자아의 윤리로 성장하는 과정,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이 또래집단 내에서 소통적 관계로 확장되고 집합화되는 방식, 그리고 세대/젠더적 감수성이 운동 세력 내부에서 차이들의 정치로 다층화되고 활성화되는 역동을 읽어내었다. 주변화된 타자로서 십대가 윤리적·소통적·정치적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촛불운동을 이해함으로써, 촛불광장을 단지 일시적인 이벤트로 단편화하는 대신, 새로운 정치세대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과정으로 맥락화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촛불, 십대, 윤리적 주체, 소통적 주체, 정치적 주체, 정체성 정치

## 1. 시작하며

2008년 봄과 여름의 광장은 전통적으로 '정치적'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에서는 상상되기 어려운 존재들에 의해 흔들렸다. 이들은 관습적인 시각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이라고 명명되기 어려웠던 듯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녀·소년들, 하이힐을 신은 20대 삼국 처자들, 유도차 부대, 예비역'과 같은 수식어들로 지칭되었다. 버틀러가 말했듯, 에두르기 담론의 반복이란, 그 현상 자체가 권력이 존재를 포획하고 고착시키고자 하지만 그 시도가 매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Butler, 1990). 나아가 권력이 매번 실패하기에, 존재는 계속 말하기와 행하기를 끈질기게 수행해나간다는 점을 알려준다(Butler, 1997).

지배적인 담론이 집요하게 포획을 시도했던, 그럼에도 계속 실패로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진 대상은 십대였다. 십대를 저항의 주체(진보적 시각)나 반대로 탈선한 청소년(보수적 시각)으로 도식화하는 양극화된 시각을 비롯하여, 이들의 정체와 참여 양상을 파악하려는 '사회적 평가'가 부지런히 행해졌다(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무수한 시각들이 불편하게 접합된 대표적 표상은 촛불소녀 아이콘이다. "순진성"과 "양증맞음"의 기표로서 촛불소녀 아이콘은 "약한 대상으로서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유용했을 뿐 아니라, 점차 그 모습이 "촛불 대가족"으로 변이하면서 누구라도 그것을 편안히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기표가 되었다(이상길, 2009). 그러나 막상 이러한 지배적 기표에서 누락된 것은, 촛불정국을 계기로 가시화되었으되 그 이전부터 현존하였던 십대, 그들의 목소리, 모습, 행동들이다. 이처럼 촛불의 십대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담론이

\* 이 논문은 2009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yeran@kw.ac.kr)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notforsale0@gmail.com)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2bytelife@gmail.com)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대상화하고, 그에 등장하고 퇴거한 십대를 내려다보는 입장에 있었다면, 이 글은 광장을 향해 움직이고, 주저하고, 물러서지만 또 다른 꿈틀대기를 시도하는 십대의, 바로 그 자리에서 서술된다. 십대의 경험과 자기인식, 사회에 대한 의미화 과정을 천착함으로써, 촛불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스스로 형성되기도 하는, ‘되어가기(becoming)’로서의 십대의 사회적 정체성을 탐문하고자 한다.

2008년 가을-겨울은 촛불의 열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의 공허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촛불’에 대한 반성적 담론이 풍부하게 생산된 시기이기도 했으며 논의의 상당 부분은 십대에 대한 것으로 채워졌다.<sup>1)</sup> 기존 담론의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역사적 연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김종엽, 2008; 한홍구, 2008). 이 입장에 따르면, 촛불에 참여한 십대는 2002년 월드컵, 2002년 효순이·미선이 추모촛불집회,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 문민정부 이후 활성화된 시민운동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인 386세대의 후속세대로 이해되기도 했다. 386세대의 ‘자녀세대’로서 민주적, 진보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다는 해석이었다. 두 번째는 사회운동적 입장으로, 촛불에 참여한 십대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 및 복지 제도의 붕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동 속에서, 가족/사회의 규율적 체제에 저항하는 행위자로서 이해된다(강내희, 2008; 고병권 외, 2008; 이득재, 2008; 이해진, 2008; 조명래, 2008; 조정환, 2009). 세 번째는 여성주의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촛불에 참여한 소녀들에게 집중되었다. ‘십대 여성’들이 ‘소녀’는 돌봄 노동과 양육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젠더 역할 및 생정치적(bio-political) 감수성을 통해 기존의 ‘정치적’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결합을 추구하는 젠더/세대적 집합체로서 설명되었다(김은실, 2008; 김정희, 2008; 박주연, 2008; 김영옥, 2009). 한편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해진(2008)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십대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변혁적인 시민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공포, 불안, 수치, 불만, 분노의 감정적 힘”으로도 충분히 움직이고, “감수성 기반을 둔 저항 방식의 상상력, 레퍼토리와 전략의 창의성, 감동과 연대감에 기반을 둔 자발성, 정서의 몰입과 열정적 헌신, 불의와 무시에 대한 분노, 참여의 지속의 미시적 메커니즘과 특성”과 같은 역능을 체득했다는 것이다(73쪽).

이러한 설명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된 십대의 정치참여 현상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해석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십대 소녀·소년들의 구체적인 정체화(identification) 과정의 특이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다소 거칠게 표현한다면 기존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끼워맞추기’나 윗세대의 신념과 회귀로 ‘부풀리기’ 식의 담론은, 촛불에 참여한 십대 소녀·소년들을 ‘386세대’의 유산, 신자유주의적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행위자, 젠더 역할의 수행자로 명명함으로써, 이들을 역사, 사회, 젠더 등 이미 전제된 범주의 결과적 산물로 정형화하고 발전과 계몽의 정치주체로서 도식화하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십대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가족·교육·사회적 권력에 의해 호명되고 훈육되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능동적인

1) 다수의 학술 저널 및 비평지들이 관련한 이슈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과학』(2008년 가을호), 『창작과 비평』(2008년 가을호), 『환경과 생명』(2008년 가을호), 『경제와 사회』(2008년 겨울호) 등이 있다. 관련한 학술 담론이 축적됨으로써 이후에는 촛불에 대한 대중서 및 학술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담론의 상당 부분에서 촛불에 참여한 10대 소녀들, 20대 여성들, ‘이준마 부대’ 등은, ‘촛불’이라는 계기 앞에서 일상과 삶의 의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다가, 어느 새인가 충분히 ‘정치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중산층 부르주아의 욕망’의 대리인(agent)으로 간주되곤 했다(이를테먼, 백승욱, 2009; 이택광, 2009; 은수미, 2009).

행동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의지 형성의 주체”(홍윤기, 2009)이기도 한 것이다. 그간 십대를 탈정치화된 문화소비의 주체로 우려하거나 의식화된 정치 행위자로 찬미하는 양극의 시각들을 넘어서며, 우리는 십대의 사회적 주체성이 주관적 가치관, 또래집단과의 교우관계와 소통, 정치적 환경에 대한 대응 행위를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현장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들의 관점에 우리의 해석 위치를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재사유하며 십대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주체로 자기형성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sup>2)</sup>

## 2. 청소년 문화에 대한 해석의 흐름들

### 1) 저항의 주체인가, 소비의 향유자인가?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의 정치적 인식과 사회적 태도가 재현되는 상징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 연구자들은, 물론 시대와 사회적 정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청소년 문화연구의 정치성 혹은 탈정치성을 진단하려는 관심을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끊임없이 보여 왔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그 간단치 않은 흐름을 단순화한다면, 문화소비의 능동성을 상징적 저항의 표출이자 정치적 미학의 실현으로 등치시키는 긍정적인 입장을 한 끝에, 반대로 문화소비의 과잉을 자본주의적 소비주의 및 개인주의의 강화, 따라서 탈정치화의 경향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른 한 끝에 배치한 축을 잣대로 취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정한 청소년 문화현상이 정치성(문화적 생산성, 즉 저항성)과 탈정치성(과잉의 소비문화, 즉 순응성)을 양극으로 하는 스펙트럼 안의 한 지점으로 자리매김되는 식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흐름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청년문화를 전후 사회의 병리학적 일탈행위로 이해한 1950년대 미국 시카고학파의 기능주의적 해석과 영국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넘어서면서, 청소년 문화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버밍엄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이하 CCCS)의 작업에 의해서였다. 여기서 청소년 하위문화는 청소년의 경험과 의식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자기형성의 과정으로서, “부르주아 질서에 대한 도전과 권위에 대한 독창적 저항을 찬미하는, 비판적인 집합적 전위”로 해석되었다(Blackman, 2005, p.16).

CCCS 연구 전통 이후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의 주요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 문화연구가

2) 여기서 십대와 청소년의 용어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문헌이나 이론을 인용할 때는 원저자의 의도와 글의 맥락에 맞도록 ‘젊은 층’, ‘젊은 세대’, ‘청소년’이라고 유동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논함에 있어 십대와 청소년을 구분하여 사용했다. 연령은 일정 연령에 대한 의무, 책임, 자유의 항목들이 사회적으로 설정되고 그에 속한 개인의 삶의 기획과 상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치적 산물이다(Mizen, 2002).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십대란 고유한 세대, 젠더, 계급적 정체성을 함축한다(강명구, 1993; 김창남, 1995; 조한혜정, 1999, 2002; 최이숙, 2002; 추주희, 2009). 이 글에서 ‘십대’는 정치적으로 이미 틀지워진 조건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십대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각하며 어른과 상대되는 의미로서 ‘청소년’을 지칭할 때, 즉 자기형성적인 정체성으로 이해될 때, 그들 자신의 표현을 빌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 개념은 계몽적이고 계도적인 의도로 포획된, 청소년 개념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십대에 의해 의식적으로 전유되고 자기형성적인 가치로 재구성된 개념이다. 이 논의는 이 글의 후반부, 정치적 정체성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는 이행기에 일어났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CCCS의 문화연구가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행동성을 부여하며, 그들을 저항적 주체로 임명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욕망에 빠져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 포스트 하위문화(post-subculture)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 CCCS의 하위문화 연구란 청소년을 통해 저항의 주체를 창출하려는 “학문적 환상”에 젖어있었던 것이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눈에 비친 청소년 문화란 자본주의 사회의 ‘시물라크럼(simulacrum)’에 불과한 것이었다. 기표의 소비를 통해 선택과 조직의 자유를 구매하며 정체성을 만들고 바꾸는 “포스트모던 향락에 젖은 탈정치화된 놀이의 한 형태”인 것이며 이 결론에 만족하지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에서 청소년 하위문화란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것으로 재정의된다. 마페 줄리의 ‘신부족(neo-tribe)’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보여주듯이, 계급적 의식에 의해 응결된 ‘청소년’이라는 세대 개념과 달리, ‘부족’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만들어지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리고 하위문화 역시-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저 유명한 표현인 ‘삶의 방식(ways of living)’이 아닌-소비의 개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lifestyle)’로, 가볍게, 치환되었다(Weinzierl & Muggleton, 2003).

이처럼 포스트모던 관점에서의 하위문화에 대한 이해는 점차 개인주의적이고, “혼종적 즐거움을 찬미하는 식의 역기능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Blackman, 2005, p.17). 이러한 입장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에 대해 개인주의적인 이해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구조의 문제를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앞의 글, pp.8~9). 예를 들어 머글톤(Muggleton, 2000)은 극단적 포스트모던의 시각을 지닌 포스트 하위문화주의자들 스스로가 “계급, 젠더, 인종을 구조화”하는 체제에 개입하기를 거부하며 “개인적 선택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자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Blackman, 2005, pp.10~11에서 재인용).

포스트 하위문화주의자들이 탈정치화 한계를 드러낸 후, 청소년 문화에 대한 평가는 정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전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 방향전환이 단지 이론의 유행변화에 기인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더욱 중요하게는 청소년 생활세계의 지구적 변동이라는 현실맥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 밀레니엄으로 이행하며 강화되는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운동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대응이 더 이상 (CCCS가 찬미했듯) 문화소비의 상징적 저항이나 (포스트 하위문화주의자들이 해석했듯) 탈정치화된 라이프스타일 놀이로 향유될 수만은 없게 된 정황이 주요했다. 이는 청소년의 삶이 과거의 빈곤이나 정치적 억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복잡적이고 미세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극명하게는, 바로 스타일로서의 정체성 표현의 통로였던 문화소비의 자유가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 갇힌 젊은이들에게 더욱 차별화되고 빈곤해지는 조건으로 악화된 때문이다-예컨대 2009년 세계경제의 침체로 “지구촌 청년 백수(는) ‘최다’”를 기록하였다.<sup>3)</sup> 그리고 ‘문화소비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안정된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차단된 젊은이들은(Blackman, 2005, p.14), 이제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 몰소 나서게 된다.

3) 한겨레신문 (2010. 8. 13). “지구촌 청년백수 ‘최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의 <2010년 세계 청년 취업 동향 보고서>에 15~24세의 청년층 실업자가 8,100만 명으로 나타나, 통계작성이 시작된 20년 전 이래 최다수를 기록했다.

## 2) 신자유주의 시대와 새로운 정치문화

최근의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연구는 청소년을 계급적 저항의 행위자로 명명하는 CCCS의 고전적 입장과 개인화된 소비주의의 스타일로서 피상화하는 포스트하위문화연구자들의 오류들을 동시에 넘어서고자 한다. 이런 의도에서 계급뿐 아니라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이념, 세대, 문화취향; 사회적 이슈(전쟁, 테러 등) 등을 매개로 일상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급격하게 발동하는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입장으로부터의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Weinzierl & Muggleton, 2003).

우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반세계화 운동의 현장에서 목도되는 바, 청소년들이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펼쳐가는 ‘대안적 행동주의(alter-activism)’에 기대를 비춘다. 주리스와 플레이어스에 따르면 대안적 행동주의란 “실제의 삶의 경험과 과정에 기초를 두고,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조직화에 헌신하며, 독자적인 직접행동을 벌이고, 새로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며, 대안적 가치와 실천을 발전시키는 실험으로서 물리적 공간과 행동의 캠프를 조직화”하는 행동주의 양식이다(Juris & Pleyers, 2009).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대안적 정치운동과 비교할 때 오늘날 대안적 행동주의의 고유한 특징은 그것의 지구화, 네트워크화, 개방성과 협동성, ICT 활용력, 감정적 연대주의가 결합된, ‘정치를 수행하는 몸들’에서 찾아진다. ‘이미지 이벤트’의 창출, 다수 행위자들 간의 느슨한 협력,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조직 구성, IT 미디어의 전술적 활용, 문화적 교란(jamming), 놀이 및 실험정신, 개인들의 살아있는 경험의 집합으로서의 역사인식, 정치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 등이 그 구체적인 모습이다(Juris & Pleyers, 2009).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포스트하위문화연구자들의 주장처럼 탈정치화되기는커녕, “정치 그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으로서 지구적 시민권”을 지향하는 것이다(Juris, 2008; Juris & Pleyers, 2009, pp.60~61). 자칫 기존 제도정치에 “근본적으로 비정치적(radically unpolitical)”인 냉소적 태도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들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의제를 창출하고 새로운 행동의 장과 행동양식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민첩하게 벌이는 일상적·미시적·행동적인 정치참여 방식이, 간접적·익명적·정례적인 투표제도 방식에 어울리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요컨대 “변화를 위해서, 그들은 투표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바꾼다”(Farthing, 2010, p.189).

한편, 새로운 세대의 정치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인 주체의 궁극적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된다. 바르퍼스(Barfuss, 2008)는 오늘날 지구적으로 디지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재치있고, 재빠르며, 조롱 잘하는 개인주의”의 기술을 익힌 젊은 세대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급진적이지는 못하다고 평한다. 오늘날 분산·유연화된 포스트포디즘적 산업 체제에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축진됨으로써 능동적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는 실상 체제에 순응하는 적극성, 즉 잘 단련된 ‘수동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동진, 2009).

이처럼 오늘날 지구적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논의되는 청소년 문화연구는 계급과 저항의 테마에 집중되어 있었던 고전적 문화연구의 외연을 넓히면서 한층 광범하고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청소년의 현실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지 간에, 청소년 문화를 대상화하여, 정치성/탈정치성, 능동성/수동성과 같은 이분화된 평가 시각을 적용하는 한계점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다. 실상 청소년의 일상이란 순종, 타협, 반대의 이질적인 태도들이 교차하며 협상하고 갈등하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이 복잡한 노선들을 가로지르며,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전개되는 주체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화가 문제시된다. 이를 위해 문화/정치, 개인/사회, 주관/객관의 중첩적 관계 및, 그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주체 형성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 3. 십대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 제안

지금까지 서술된 논쟁의 핵심은, 자유와 즐거움의 가치가 중시되는 청소년 문화가, 역시 개인적 자유와 즐거움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식으로 무한증식해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정치성을 확보하는가라는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과 행동성이 두드러지는 십대들의 삶이기에,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보다 섬세한 접근을 요한다.

주체와 체제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바네트와 그의 동료들(Barnett et al., 2008)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민권의 죽음’을 비판적으로 예단하기 이전에, 시민권의 지위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봉합’되는 계기로서 “주체화의 새로운 삶의 공간(new habitat of subjectification)”을 내밀히 살필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푸코의 (신)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적 통찰을 따라가면서, 권력의 강대한 규범화 효과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덕스럽고 역동적인, 별종의 주체가 태어날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통치 권력이 개인의 발전과 자유를 촉진시키는 식으로 발휘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맹신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유롭고 자율적이라고 믿는 개인의 응답 자체가 이미 통치 권력에 의해 구성된 순응적 반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Barnett et al., 2008, p.633). 그럼에도 통치권력이 그 의도와 계획대로 주체에게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판결내리는 결정론도 성급하다. 따라서 개인과 구조 ‘사이’에서 작동하는 매개와 변화의 지점에 조금 더 면밀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권력의 일방적 산물도, 권력에 독립적으로 대항하는 저항적 주체도 아니라면,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이 때 주체의 존재양식으로서, 권력에 마주 선 단독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의 ‘나’가 중요해진다. 즉 세계로부터 분리된 개인 아니면 전체 안에 흡수된 익명자라는 식의 비판적인 극단화 대신, 자율적인 개인으로 존재하되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그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사유를 해나가는 ‘자아’,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공유하는 ‘집합’의 관계, 상이한 집합들이 연대하거나 갈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과 정의에 관한 ‘정치적’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윤리적 주체, 소통적 주체, 정치적 주체의 층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외부로부터 고립되거나 그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나’로서 윤리적 주체, 그리고 세계와 독대한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연계하고 공존하는 ‘나’로서 소통적 주체, 마지막으로 나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와 상호작용하는 ‘나’로서 정치적 주체이다. 윤리적 주체-소통적 주체-정치적 주체는, 각각 자아의 주관과 진정성-간주관적 인간관계 및 공동체 문화-사회적 활동과 효과의

차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 여러 쌍들을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며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전의 청소년 문화연구가 개인/사회, 주체/구조, 주관/객관의 영역을 애써 구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겪어야 했던 오류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관해 관계적이며 지속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우선 윤리적 주체란 사회관계와 구조를 자신의 위치에서 성찰하고 자신의 시각에서 새롭게 문제구성하고 담론화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의지를 발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세이어(Sayer, 2005)가 부르디외의 논의의 발전을 피하며 논하듯이, 아비투스(역사나 사회로부터 부여받아 불변적으로 고착되는 계급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요소들과 상황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변화의 공간이다. 따라서 특정 아비투스에 위치한 주체는 계급화된 규범을 무의식적으로 체득하여 수행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맞부딪힐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상과 기대와 시도를 벌이기도 한다. 주어진 것/새로운 것, 외부적인 것/내부적인 것, 객관적인 것/관계적인 것들을 견주며 이해하고 성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사회적 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생성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즉 주체는 객관적으로 부여된 계급적 아비투스의 틀을 넘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인식·해석하고, 신념체계를 구성하면서 “진정성”의 “윤리”를 형성해 간다(Taylor, 1991). 이처럼 계급 안에 묶여 있되, 그것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내적의 사고, 감정, 가치의 총체로서 “도덕적 이상”(Taylor, 1991)을 생성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천하는 주체를 곧 윤리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도덕이 그리 거창한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윤리적 주체의 의미는 거창한 사회 문제를 자신의 틀 안으로 전유하여, 자신의 가치 및 태도로 재구성하는 “소박한 규범성(day normativity)”에서 찾아진다(Sayer, 2005, p.649).<sup>4)</sup>

자신의 자율과 자유를 정의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 너머 존재하는 “의미의 지평(horizon of significance)”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Taylor, 1991).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껍질을 넘어 타인과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는 “불가피하게 절대적인” 이유에서 타인을 향해 열려있고 타인과 관계맺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리적 주체는 자연스럽게 ‘소통의 주체(communicative subject)’가 된다. 도덕과 소통은 서로 불가분하게 맞물려 있다. 우선 도덕의 실행에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방식 그대로 타인에게 행할 때 비로소 도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Sayer, 2005, p.9). 마찬가지로 소통에 있어 도덕은 필수적인데, 도덕적 차원이란 무수히 상이한 삶들이 함께 형성하는 인간관계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언제나 이미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enhabib, 1992, pp.125~126; Sayer, 2005, p.10에서 재인용). 이처럼 윤리적 주체는 자연스럽게 소통의 회원과 의지를 지니며 타인에게 관계맺기를 감행하면서, 스스로 소통의 주체로 확장한다. 나아가 소통의 과정에서 개인은 타인의 지지와 교정을 받으면서, 점차 사회적에서 자신의 주관적 도덕을 말하는, “주장적 주체(argumentative subject)”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윤리적으로 소통하는 주체는 “조화 안에서 행위(acting-in-concert)”하고자 쉽없이 노력하기에, 그의 삶의 세계는 곧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확장이라는 다소 무거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소통’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치’로 확장되는 가능성은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검토된 바 있다.

4) 이런 점에서 규범성(normativity)과 규범화(normalizing)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규범화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강제력이나 조건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규범성은 자기 내부로부터의 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확장이 결코 소수의 영웅에 의해서가 아니라 범상하고 때로는 고통받는 다수 인간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되었다. 조디 던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가치와 관계의 방식에 따라 진지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집합적 형태로서 ‘성찰적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Dean, 1996). 개인적인 친밀성 안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연대(affective solidarity)’나 전통에 기대어 만들어지는 ‘관습적인 연대(conventional solidarity)’와 달리, 이 양극적인 형태의 문제점-전자에 있어서 과도한 내향성 및 후자에 있어서의 과도한 보편성-을 넘어서며, 성찰적 연대는 ‘관계성에 대한 책임있는 지향, 그리고 그것을 향한 상호평등적 기대’를 지향한다(Dean, 1996, p.29).

그러나 성찰적 연대라는 아름다운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두 오류에 찬 인간이라 할 때, 이러한 인간들이 부당한 현실에서 책임있고 정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부족한 인간의 행동은 고통 받는 존재에 대한 연민, 그리고 고통을 주는 부당한 지배자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온정적 이거나 감상적 향유의 태도로 협소하게 변질되지 않고, 고통을 주는 자 곧 지배하는 자에 대한 타당한 비판 및 고통을 받는 자에 대한 정의로운 지원으로 발휘되는 현장을, 볼탄스키는 ‘연민의 정치(politics of pity)’라고 이름 붙인다(Boltanski, 1999). 연민의 정치는 관찰자가 부당한 지배자를 향해 던지는 비난·조롱·반발의 언어나, 고통을 겪는 불행한 자가 스스로 발하는 도전의 언어를 통해 급진적인 미학으로 발현한다. 성찰적 연대와 연민의 정치에 관한 사유들은 범상하거나 불행한 이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여, 도전적인 담론 실천과 정치적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sup>5)</sup> 나아가 이 가능성이 단지 전망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고통과 불안이 상호연대하며 일정한 정치행위로 드러나는 방식, 또는 일반화된 고통과 불안이 보다 세밀한 정황적 차이들에서 분화되며 구체화되는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이해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리적 주체, 소통적 주체, 정치적 주체의 개념은 촛불의 집대를 해석하기 위한 틀로서 몇 가지의 적합성을 지닌다. 우선 역사와 사회의 반영적 산물로서 집대를 이해하는 결과론적 견해를 교정할 수 있다. 대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외부’의 문제를 자아의 문제로 주관화하여 새로운 문제들로 재구성하고 성찰하는 윤리적 진정성이 중시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문화의 장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다양한 생각, 정보, 경험들이 교차하여 변화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개인적 변화 가능성 역시 과거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Stahl, 2003)이, 현재 집대의 윤리적 주체성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통적 주체의 관점에 설 때, 이념적 환원론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사회 환경 및 가족사가 저항적인 집대를 낳았다는 단선적 시각 대신, 집대의 상호적인 소통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운동의 수평적 역동과 상호주관적 의미화가 구축된다는 과정적 시각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주체에 있어서 이들의, 약자로서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참여가 기존의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전망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적이고 윤리적 정체성, 공동체적인(소통적 정체성)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지점이 곧 정치적 정체성이다. 특히 집대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우리는 촛불집회 ‘일반’의 효과가 아니라, 촛불을 매개로 또 다른

5) 연민의 정치의 관점과 유사하게 촛불집회를 ‘불안의 연대’로 해석하는 정태석의 관점은 매우 흥미롭다(정태석, 2009). 위험사회와 정치의 시장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불안을 매개로 연대한다는 그의 이론은 설득적이지 않지만, 상이한 위치와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위기와 불안을 공유하여 전면적으로 집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까다롭고 중요한 문제는 비껴간다.



차이들이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파생되어 나가는,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차이들’의 정치에 관심을 둔다. 이는 어른-남성 중심으로 전형화된 시민운동 ‘내부’에서, 재차 타자화된 십대들이 진행한 내부적 균열내기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듯 십대들이 규범화된 위치를 거부하고 자아-공동체-사회적 관계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윤리적-소통적-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청소년’으로 되어가는-과정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그 복잡한 절들을 보다 깊게 읽어 나갈 것이다.

#### 4. 말걸기와 듣기의 방법론

촛불에 참여한 십대의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우리’는 2009년 여름부터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십대들을 만났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십대들에 대해 지녀왔던 편견<sup>6)</sup>을 마주하는 곤혹스런 경험이기도 했기에, 자신을 반성하고 수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다. 심층인터뷰는 말걸기와 듣기의 방법론이다. 스피박(Spivak, 1988)은 역사적으로 침묵되어 온 이들로부터 단지 듣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면 속에서 ‘말걸기’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재현의 특권을 비울(unlearn)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말걸기의 문제는 대화와 해석의 문제, 즉 듣기와 이해하기의 문제와 연계된다. 연구자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타인의 말을 자극삼아 자신의 선의견을 의식적으로 “전유”하여 그것의 자의성을 수정하고 보다 “정당한 이해”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해석자이자 연구자는 인터뷰 대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이해의 반성”과 “타인의 의미세계의 이해”라는 이중의 과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신진욱, 2009, 45~47쪽). 우리는 이처럼 자신과 타인이 발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대상의 외적 맥락과 내적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해석”에 이르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을 통해 방법론적 자기성찰성의 가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심층인터뷰는 2009년 여름 동안, 2008년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십여 명의 십대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시민단체의 한 활동가의 소개를 통해, 청소년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십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후 스노우볼링 작업을 통해 인터뷰 범위를 넓혀갔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가족/학교/학원/아르바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과 함께 2008년 촛불 경험에 대한 기억과 견해, 그리고 다시 현재(2009년 여름)에 대한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반구조화된 질의응답과 유연한 대화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1~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취되었다. 인터뷰 이후 1년이 지난 2010년 여름, 청소년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두 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총 6명의 사례를 접하게 된다. 이들 소녀(3명)·소년(3명)들은 십대 초반에서 후반으

6)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십대들이 미성숙하기에 자신의 정치참여의 의미를 해석할 언어를 갖지 못하거나, 혹은 ‘어른’들의 언어를 선불리 흉내내리라는 식의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음을 계속 발견했고 이를 수정해나가고자 애썼다. 이러한 오류수정의 과정은 상이한 위치의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진행되었다.

로, 촛불정국을 전후하여 두드러지게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현재는 학교에 다니거나 자퇴를 한 상태이다. 연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의 <표 1>과 같이 연구참여자 여섯 명을 대략적으로 소개한다. 이들 중 일부는 촛불 전부터 청소년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촛불 참여를 계기로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어 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sup>7)</sup>

<표 1>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 (가명)	<가>	<나>	<다>	<라>	<마>	<바>
성별	남	남	여	여	여	남
연령 (인터뷰 시점)	12	17	19	17	18	18
촛불 국면 전후 상태	촛불 국면 이전부터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 (모두 A 단체 소속)			촛불 국면을 계기로 활동 시작		
				B 단체 소속 활동		
인터뷰 시점의 일상 및 사회활동	A 단체 활동		프로젝트 C 활동		대학 입시 준비 중	

## 5. 윤리적 주체: 사회적인 것의 주관화

연구자들이 만난 십대 소녀·소년들은 각자 다양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촛불 참여 이전부터 학교와 가족에서의 소통의 부재, 관계의 어려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듯했다. 이들에게 촛불정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호한 형태로 감지되던 갈등들이 집결되고, 새로운 문제들과 결합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문제’로 구성될 수 있었던 계기적 사건이다. 촛불정국을 계기로 이전까지의 다양한 갈등적 경험들이 평소보다 급격하고 명료하게 개인적 의식의 표면에 떠오를 수 있었다.

집과 학교로 대변되는 십대의 현실은 “재미없음”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학교 체벌, 야간 자율학습, 성적에 대한 강압감, 경제적 조건의 악화와 아르바이트 경험(연구참여자 <다>, <마>)과 같은 일상의 억압,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의 별거, 가정폭력의 이픈 경험이 십대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연구참여자 <가>, <나>, <바>),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소외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그들에게 촛불은 “우연히” 접하게 된 색다른 현상이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7) 여기에서 말하는 10대 소녀·소년들의 ‘청소년에 의한 단체’는 주로 온라인 기반이고 10대, 20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가리키며(김진아 외, 2009), 이런 점에서 기성세대가 운영하는 ‘청소년에 대한 단체’와는 차별화된다. 연구참여자들 중 3명이 활동 중인 A 단체는 청소년 인권 단체로, 2000년대 초반 고등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졸업 후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 자발적인 단체로 전환하였다(연구참여자 <나>). 고정된 사무실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지역 모임을 꾸려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온라인 회원수 6,000명을 상회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 활동하는 회원 수는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10~20명 정도라고 한다(연구참여자 <나>). B 단체도 A 단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기반한 청소년 주도 단체다. 촛불정국 시기인 2008년 5월 전국적인 청소년 대중 조직을 지향하며 연구참여자인 <바>가 결성했다. 연구참여자 <다>와 <라>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C는 인터넷 라디오를 통한 문화운동 프로젝트다. 촛불과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 만나 친해진 5명의 “여성 청소년들”의 친목모임에서 출발하여 현재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구참여자 <다>).

흥미의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실천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다가왔다. 주변화된 십대들의, 희미하되 의미심장한 삶의 고민들이 촛불정국과 결합하면서 보다 명료한 문제들로 접합될 수 있었다. 싫은 학교와 미운 선생님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가 교육 민주화의 문제로 추상화되는 과정과, 광우병이라는 추상적 문제가 이들의 개인적 건강의 문제로 구체화되는 객관화와 주관화의 과정이 병행되었다. 가령 <마>는 촛불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벽차다는 느낌”을 두 가지 의미에서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는 “맨 처음에 그 촛불들, 엄청나게 [많은] 6월 10일 날의 촛불들이” 폭력적 시위가 아닌 다른 광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의 감각적 흥분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것도 몰랐었”던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수입 쇠고기 문제가 “정치랑도 관련이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자각(awakening)의 경험과 관련된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자들이 만난 십대들은 촛불 국면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가 촛불과 밀접히 맞물리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촛불광장에 직접 나서지 않은 다수의 소녀·소년들도 촛불정국을 접하며 자신이 처한 일상적 삶의 조건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발통제, 자율학습으로 점철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겪던 무료함, 지루함, 걱정, 불안의 느낌은 이제 인권 시각에서의 교육의 문제로, 또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감은 이것을 수입하는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한층 명료해지며, “해방감”(<라>)과 “자유”에 대한 감동(<마>)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감수성과 인식의 성장 흐름을, 자아/외부세계, 추상화/구체화, 주관성/보편성을 아우르며 진행되는 윤리적 주체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가족과 학교 안에서 불행과 긴장을 경험해 온 십대 소녀·소년들은 촛불정국에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는 도덕적 용기와,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양심적 실천력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적 고통이 실천적 도덕성으로 전환되어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의 설명에 기댄다면, 이들의 감정 세계는 일종의 “상처입은 애착(wounded attachment)”과 같은 것이다(Brown, 1993). 브라운이 니체의 ‘질투’와 ‘분노’의 개념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듯이, 현실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가 분노와 질투를 발휘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처입고 소외되는 수동적 경험이 아니다. 고통은 정상화의 논리로 지배되는 권력 체계 안에서, 그 힘의 작용을 가로지르며 살아가려는 주체의 적극적인 감정 작용으로 설명된다. 고통과 분노에 근거한 약자의 반항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한탄과는 다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무한추구를 슬로건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획일화된 주체 형성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터이지만, 십대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현실문제들이 십대 주체들에 의해 명료하게 사유되고 발화(發火/發話)되는 사건으로서 촛불정국을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만난 십대들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안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나가고 자신의 경험적 문제를 안에서 결합하여 주관적인 가치와 신념을 구성하는 과정을 스스로 밟아나갔다. 이들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들로 전환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틀 안에서 궁구하고 구체화하며 대응하려는 윤리적 주체로 성장해 간 것이다.

## 6. 소통적 주체: 혼자 느끼기에서 서로 이야기하기로

흔히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미성숙한 십대, 또는 사회적으로 불행하거나 불량한 소녀·소년들이 촛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말해지며 그 이유에 대한 몇 개의 가설이 덧붙여지곤 한다.<sup>8)</sup> 이를테면 이들을 ‘일탈자’로 명명하면서 원래 문제아들이기에 일탈적이라거나, ‘반항자’로 명명하면서 이미 사회적 규범에 반발적이었기에 촛불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적 낙인찍기는 매우 위험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들을 특별히 일탈적이거나 반항적인 자로 전제할 만한 어떠한 사실적·이론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통념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전술된 바와 같이, 일상과 사회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십대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방식, 즉 소통과 교류 행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요청된다.

<나>는 촛불정국 이전부터 학교 교사의 물리적 체벌과 비인격적 대우에 반발하며, 스스로 청소년 인권 단체인 A 단체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가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도 A 단체를 통해서였는데, 촛불운동 참여를 통해 무료한 학교를 벗어나 좀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데” 대한 “즐거움”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이 만난 대부분의 십대 소녀·소년들은 촛불이 주는 의미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정치에 관해서 토론도 하”는(<마>의 인용) “재미”와 “성취감”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십대가 촛불 현장에서 얻은 즐거움이 서로의 느낌과 정치적 의견을 공유해 가는 소통과 친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려준다.(전효관, 2003) 광장(오프라인)과 인터넷(온라인)을 아우르며 이전의 친구관계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다층적 경험들이 교차하면서, 사회적 현상으로서 십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졌다. (외부의 눈에서는 배후를 찾게 만들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바, 소녀·소년들의 소통적 집합이 형성된 것이다.

촛불 활동의 정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의 거리와 광장,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가상공간이 활발히 접합되고 이용되었다. 십대들은 촛불 국면 이전에도 자주 방문하던 유머, 개그 및 외모 관련 커뮤니티(예를 들어 ‘썩빵’), 중요 사회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토론 사이트(다음 아고라), 촛불 현장을 주도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안티MB’나 ‘미친소닷컴’), 블로그들에 접근했고, 스스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를 만들기도 했다. 가령 <마>는 거리의 촛불 현장에 무수한 청소년들이 걸집했으나, 이들이 다수 사용하는 익명의 모바일 문자 유통 방식이 지나치게 “비조직적”이라는 데에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년의 조직적 활동을 지향하는 온라인 카페인 B 단체를 직접 개설했다. 한편 촛불 초기에 홀로 참여한 <마>는 초기엔 “방관자 입장”에 있었지만, 교복 입은 학생들이 큰 규모로 촛불 현장에 몸담는 광경을 보며 점차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카페에 가입해 촛불광장에서 “같이 다닐 친구를 구하”는 식으로, 점차 활발한 교류 및 정치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 눈자들이 이미 기술한 지구적 현상인 ‘대안적 행동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사회적인 경험의 공유와 언어적 공통성에 뿌리를 둔, 보다 지역화된 소통과 집결의 집합적 행위라는 점에서, 촛불의 십대는 여기-지금 우리가 처한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지닌다. 마치 직관처럼 인터넷을 통해 ‘모이자’라고 말을 던지면 누군가에게 다다르고 그에 동감하는 누군가는 대답하여

8) 한 사례로서 오현석(2008)의 “‘촛불’은 없고... 끈들의 ‘비열한 폭력’”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와 동일 신문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흥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2010. 7. 2)를 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순진하되 용감한 ‘사회적 상상’(Taylor, 2010)이, 공동의 삶의 공간을 살아가는 십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공유된 것이다. 이렇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들을 가로지르며 광범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교류, 대면, 소통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집단으로서 촛불의 십대가 사회적인 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벨 후크스(hooks, 1991)가 지적했듯, “위험스러운 주변부”는 “급진적 열림의 공간”(p.149)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위험스런 주변부 바로 그 위치로부터 대안이 사유되고 새로운 문화실천이 상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화된 십대들이 겪은 “위험스런” 소통 활동은 촛불광장을 새로운 급진적인 공간으로 열어나갔다. 그들의 다각적이고 다채로운 자유와 의지가 소통되고 공유됨으로써, 이전에는 행해지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견될 수도조차 없었을 생각, 말, 행동이 광장에서 창조되어 개시되고 퍼져 나갔다.

십대들의 고통의 발화는 고유한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코드’로 정련된다. 불탄스키가 고통에 대한 ‘연민의 정치’가 발휘될 수 있는 언어적 코드로서 ‘공개적 비난(denunciation)’이나 ‘확증’과 ‘정당화’의 코드를 제시한 것처럼(Boltanski, 1999) 특정한 정치적 경험이 고유한 언어 스타일로 표현된다는 견해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어적 코드의 진정한 중요성은 개별적 언어 코드가 고유하게 함축하는 정치적 의미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이런 점에서 촛불 십대의 언어적 코드의 독특함은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즐거움과 재미와 같은 긍정의 언어로 전유하는 역설의 코드,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는 비판과 도전의 기의에 있다. 예컨대 A 단체는 등교거부라는 자칫 무겁게 비칠 수 있는 직접행동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의미화하여 무거움을 덜어내며 가볍게 실행한다. 십대들이 전교조 교사나 진보 단체에 의해 동원되었다거나(배후설), 보호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보수 담론(10시 귀가지침 등)은 십대 스스로의 유머 코드에 의해 끊임없이 조롱당하는 대상이 되었다. 스타일에 있어서도,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생 언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한편, 기성 운동조직의 틀에 박힌 수사학적 코드가 모방되고 오용되는 변용의 전술이 발랄하게 혼용되었다. 예컨대 한 시민단체가 대량 배포한 피켓의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구호는 A 단체에 의해 “어른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_-;”(http://gonghyun.t\*\*\*\*.tistory.com/\*\*\*\*) A 단체 명의의 웹 자바로 배포된 이 자료는 현재 A 단체 활동가의 개인 블로그에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하에서는 글쓴이의 보호를 위해 인용된 URL은 부분적으로 익명화하여 제시한다.

촛불의 십대 집단은 서로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있는 다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자가 차이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차이들을 내포한 결절점이기도 하다. 또래친구들과의 소통은 수많은 차이들이 서로 교류되고 응결할 수 있는 위치와 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을 통해 개인은, 전적인 고립에 빠지거나 권력의 호명에 완전히 굴복하는 대신,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율하

9) 김이구 (2008. 5. 11).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 『오마이뉴스』, [온라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790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7908).

10) “어른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_-;”(http://gonghyun.t\*\*\*\*.tistory.com/\*\*\*\*) A 단체 명의의 웹 자바로 배포된 이 자료는 현재 A 단체 활동가의 개인 블로그에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하에서는 글쓴이의 보호를 위해 인용된 URL은 부분적으로 익명화하여 제시한다.

11) “5·17 행동에 대한 고민과 제안” A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http://cafe.naver.com/a\\*\\*\\*\\*/\\*\\*\\*\\*\\*](http://cafe.naver.com/a****/*****))

며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논의를 살찌워가는 경험을 쌓아간다. 그리고 비로소 다수의 목소리를 포용한 것으로서의 자신의 언어를 발화한다. 소통을 통한 관계망으로부터 비로소 정치적으로 “주장적 주체(argumentative subject)”로서, 십대 스스로 표명하는 바로서의 ‘청소년’ 집단이 만들어진다.

## 7. 정치적 주체: 차이 안에서 차이들을 만들기

소통을 매개로 집합화한 십대는 자신의 문제를 촛불광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십대는 초기 촛불 운동 점화에 주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 및 일제고사와 같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촛불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정치 의제화했다. 그러나 촛불광장이 성인 지배적인 질서로 재편성되면서, 십대들은 차차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촛불정국 초기에 활발히 등장했던 십대 소녀·소년들은 점차 광장으로부터 사라져갔다. 촛불광장을 경계로 정부와 시민이 대면한다면, 시민 집단 내부에서 청소년/어른, 여성/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운동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감수성을 기준으로 분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십대의 존재성은 시민의 연대 ‘안에서 중심부의 운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렇듯 시민 집단 내부의 분화라는 맥락을 이해할 때, 십대의 정치성에 관심을 두는 우리는, 그 분화의 외시적 효과 대신 광장 안으로부터 균열을 낳은 청소년의 정치적 정체성 차원에 집중하기로 한다.

연구자들이 만난 십대들은 생물학적 연령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치함축적인 범주로서 청소년/비(非)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었다. 설사 자연적인 나이로는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로서는 청소년에 머물고 싶다는 이들의 생각 속에서 비청소년, 즉 ‘어른’이란 부정적 미래로서만 유의미한 대상이었다. 이렇듯 세대라는 기준을 안팎으로 가로지르며(in-between) 구성된 촛불의 십대 정체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러나 매우 부정확하게 표상하는 기표는 ‘촛불소녀’ 아이콘일 것이다. 그러나 ‘촛불소녀’ 아이콘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목받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반면, 막상 이에 대한 십대들의 입장, 그 비판적 목소리의 울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촛불소녀’ 아이콘에 대한 기성세대의 호의는 귀여움의 대상이 된 존재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권위와 이들을 “미래로 유예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동시에 내포한다.<sup>12)</sup> 반면 연구자들이 만난 소녀·소년들은 모두 ‘촛불소녀’ 아이콘을 거부하거나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테면 청소년 인권 운동 단체인 A 단체는 촛불소녀 아이콘이 ‘소녀’의 이미지를 촛불에 병치시킴으로써 촛불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약자의 이미지로 틀짓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13)</sup> A 단체에서 활동하던 <다>에 따르면 촛불광장에서도 ‘촛불소녀’라는 아이콘에 대한 비판적 토론과 회의가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들에게 ‘촛불소녀’ 아이콘은 “애들을 띄워서 동정심을 유발”하고(<가>), “어른들(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마>), “이용”된다는 느낌(<나>)을 줄 정도로 수상하고 불쾌한 기표였다. ‘촛불소녀’ 아이콘에 대한 십대의 부정적 판단에는, 십대를 보호나 칭찬의 대상으로 추켜세우는 대신 이들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성세대의 이중적 태도를 향한 비판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십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은 촛불광장의 일상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십대의 시각에서 볼 때, 어른—

12) “촛불소녀에 거는 은근 태클” [http://g\\*\\*\\*\\*\\*.tistory.com/\\*\\*/](http://g*****.tistory.com/**/)

13) [http://g\\*\\*\\*\\*\\*.tistory.com/\\*\\*/](http://g*****.tistory.com/**/)

남성 단체는 십대 소녀·소년을 여성화(feminization)·아동화(infantilization)하며, 스스로를 지배와 보호의 권력으로 자임했다. <나>는 촛불 현장에서 “어른 단체”가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아이, 귀엽다”(라며) 쓰다듬어 주고” 하는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다가, “여자 청소년들에게 남자 어른들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문제제기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들을 조직했다. 그에 따르면 ‘비칭소년’ 단체는 반말을 하고 잔심부름을 시키며, 유순히 따르지 않으면 활동비 지원(숙박, 인쇄, 깃발 제작 비용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십대를 통제하면서도 10시가 넘으면 귀가를 권유, 종용하는 식으로 보호의 권력을 남용했다. 어른들이 소녀들에게 언어적, 육체적인 희롱을 가한다는 소문이 돌고, 십대의 집단적 항의가 있었을 정도로, “군사화된”(<나>) 촛불 문화에 대한 갈등이 내부적으로 첨예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훈육과 차별의 이중적 권력 작용이 횡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은 촛불광장으로부터 점차 사라져 갔다.

중요한 점은 십대의 정치적 감수성이, 그들이 기성의 운동문화로부터 스스로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외부적 시각으로부터 사라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층 성숙해졌다는 사실이다. 기성 운동문화의 인습화된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질서(<마>)와 “소수자 감수성”의 결핍의 문제(<나>)는 막 촛불에 들어선 십대에게 있어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기성의 운동집단을 떠나 A 단체와 같은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진보”의 “실제”에 대해 새로이 눈뜨고 몸소 실행하는 경험을 쌓아가게 된다.

<마>: ‘야 그거 무겁잖아. 남자애들 쥐’ 이러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나도 힘센데.’ 이러면서 막 들고 가거나, 그리고 회의를 할 때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거, 힘, 그러니까는 실제로 진보적인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성차별 안하고, 다 평등하고 남, 너 이런 거 없이 근데 실제로도 힘이러던가 이런 거 보면 살짝 있거든요, 마초적인 면모들이 남자애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러면 멋있어 보이겠다 그런 게.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은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인권운동 하는 친구들이랑, 아예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들이랑은 완전히 그런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정부에 대한 반대가 십대의 정치의식을 점화했다면, 이제 기성층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점차 인지해 가면서 운동 내부에서 또다시 운동을 시도하는, 십대의 재정치화 과정이 전개되었다. 단지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집회라는 단일성이 아니라, 그 일차적인 대항 안에서 또다시 여러 겹의 대안성, 부정성, 저항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한결 중층적이고 섬세하게 구성되는 십대의 정치적 정체성을 읽을 수 있다.

촛불광장의 십대들은 기성의 시민운동과는 구별되는 정체성 정치의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의 운동문화가 대의(예컨대 반미와 진보)를 위해 차이들을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십대의 정치문화는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실제 행동”(<마>)하는 감수성과 실천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세대/젠더질서에 의해 정부와 기성 시민들로부터 이중으로 고통당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소녀·소년들이, 분노와 연민의 공감을 통해 응결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가치나 이념적 기준이 통합을 명령하는 절대권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상호평등적인 기대와 책임성 있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상상력이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찰적인 연대’(Dean, 1996)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십대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들로 ‘되어가고’ 있었다.

## 8. 후기: 그로부터 일 년 후

첫 인터뷰 기간이 지나고 일 년 후에, 우리는 십대 연구참여자들 중의 일부와 다시 만났다. 그들을 2008년 촛불광장이라는 단발적인 스냅샷에 일시적인 이미지로 굳혀두기보다는, 과정적이고 계속적인 자기 형성의 과정 안에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십대들은 당연히 자라고 변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한층 성숙하고 날카로운 이해를 지닌 모습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학교로 돌아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인권 단체에서 활동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들은 촛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나>는 촛불 국면 초기에는 학교에서 자신이 전개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에 대해 회의에 빠져 있었지만, 촛불을 계기로 변화한 학교 풍경과 광장에서 만난 수많은 또래친구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거대 액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기로 한다. <다>의 경우 2008년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한 후 촛불에 결합하였다. 촛불 당시 연행을 당한 뒤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풀려나지만 언론에 ‘여중생의 연행’으로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를 보다 공고히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서 정체화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주체성의 국면 이동의 궤적들은 모두 상이했으나, 그 각자의 다름은 서로 맞닿아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부딪쳐 갈라지기도 하는 흔적들을 머금고 있다. 십대들은 촛불광장의 외부적 경계에서 물대포와 전경과의 몸싸움 등을 통해 정부-국가의 폭력적 실체를 자각하며, 촛불광장의 내부적 경계에서 남성-어른 중심으로 기성화된 ‘시민’ 주체의 보수성 역시 확인한다. 촛불 참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은 국가-자본-남성-어른이라는 전선에 대면하는 집단적 정체성인 동시에, 스스로를 소수자 위치에 두고 소수자의 관점에서 서서 운동 문화에 대한 내부적 성찰을 요청할 수 있는 실천적 위치이기도 했다. 자신의 고유한 기억과 현재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오가며, 십대 소녀·소년들은 어쩌면 또 한 차례 성장하는 것이다.

## 9. 맺으며

2008년의 촛불을 둘러싼 무수한 담론들은 끊임없이 촛불의 십대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 왔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십대들을 과잉재현하거나 과소재현함으로써 십대 그 자신들을 재현의 장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낳았다. 우리는 촛불의 십대들을 위협 또는 저항의 주체로 신화화하는 기존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들과의 말걸기와 듣기를 통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했다. 십대의 일상 속에서 체화된 고통과 분노의 경험이 2008년 촛불이라는 계기를 통해 윤리적인 태도로 구체화되고, 소통을 통해 재구성되며, 차이의 정치화라는 흐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나갔다.



우리는 십대의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감정과 경험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발휘된 행위로서 십대의 촛불 참여문화를 해석했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 하에서 십대가 겪게 되는 분노, 긴장, 두려움의 감정이 윤리적인 문제로 각성되고 정치적 실천으로 적극화되는 흐름과, 이러한 정치적 인식이 특정한 소통의 코드로 재현되는 문화적 흐름이 접합하는 지점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졌다. 아래의 <나>의 복합적인 목소리에서 내비치듯이, 촛불의 십대는 윤리적 주체로서 사회적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내면화하여 의미화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고, 다양한 또래집단의 하위문화적 경험 안에서 자신의 타인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덕성과 능력을 지니며 이에 따라 자신의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소통적 주체로서 성숙해 갔으며, 자신과 친구들의 생각과 경험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구체적 행위로 개진하는 것을 시도하는 정치적 주체로 성장해 나갔다.

<나>: 내가 인권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딱히 정치가 나의 목표였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정치가가 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없었고, 정치 자체는 고민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 자연히 ... 이제 나에게 있어서 ... 내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내 목소리를 사람들과 이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활동들, 내 짜증을 풀어내는 방법이었어. 답답함, 분노, 열 받음, 억울함, 상상력? 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처럼 도덕, 소통, 정치의 차원들에서 중첩적으로 형성되는 십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사회, 문화/정치를 분리하여, 양 극단의 한 영역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청소년 문화이론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이 때 주변화된 타자가 획득한 분노와 복수의 심리는 일시적 일탈이나 놀이로 발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윤리적 진정성으로, 소통의 상상력으로, 정치적 감수성으로 성숙한 잠재성을 지닌다. 따라서 십대에게 있어 촛불 현장에의 참여란 자신의 고유한 경험의 바탕 위에서 ‘되어가는’ 윤리적, 소통적, 정치적 주체로의 자기형성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이 글의 모든 논의가 분명하고 궁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십대들은 (어쩌면 그 누구도 그러하듯) 다수의 충돌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 혼돈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상품화와 정치성의 중첩 및 상충의 문제가 주요한데, 예를 들면 홍대 앞의 상업화된 카페거리가 자유로운 청년문화의 본거지로 낭만화된다는지, 원하는 것을 모두 하고 즐길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상상되는 식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렇듯 십대의 삶에 혼존하는 갈등과 가능성에 대한 열린 이해이다. 그들의 갈등과 혼란은 곧 한국사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소비 주체 혹은 집단화된 운동 주체라는 양분된 시각을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들과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접합적으로 형성되고 형성하는 십대의 정체성, 또는 정체성의 정치의 문제가 더욱 긴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촛불에 참여한 십대들과의 ‘만남’은 단지 십대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를 요청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이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질문을 제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스피박(Spivak, 1992)이 문제화한 식민 여성의 하위주체들(subalterns)과는 달리, 우리가 만난 십대 소녀·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활발히 발화할 수 기본적인 공간을,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광장 한 부분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체위치가 촛불의 진행 과정에서

급속하게 탈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환원되었다고 한다면, 그 주체위치를 복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 역시 이 글의 과제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훈순간의 이벤트로 마무리하는 대신, 십대 주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환의 향방을 통찰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은 향후의 과제로서 계속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미래를 믿는다면, 그것은 현재의 십대들에 의해 도래하는 그 무엇이 될 터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윤리적 진정성, 소통의 문화, 정치적 실천력의 가능성과 전망을 열어 주는 힘 역시 십대 소녀·소년들이 만들어 뿌리고 모으는 생각·말·행위, 그것의 발랄하되 진중한 파동과 반향으로부터 빚어져 나온다. 십대의 정체화는 때로는 의도하지만 때로는 의식의 밑에서조차 항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미-언제나 역사적이다. 촛불광장을 한때의 이벤트로 넘겨버리지 않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된 십대들의 정체성 정치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해독되고 공유되는, 그 성찰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만이 새로운 정치세대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맥락화가 가능할 것이다.

## Ⅰ 참고문헌

- 강내희 (2008). 촛불정국과 신자유주의. 『문화과학』, 55호, 66~89.
- 강명구 (1993). 압구정 문화와 노동청소년 문화.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233~274쪽). 서울: 민음사.
- 고병권 외 (2008). 특집 좌담: 좌파, 2008년 촛불집회를 말하다. 『문화과학』, 55호, 15~65.
- 김영옥 (2009). 여성·국가·촛불: 광장과 살림은 어떻게 만나는가.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201~214쪽). 서울: 웅진씽크빅.
- 김은실 (2008). 세계화, 국민국가, 생명정치: 촛불, “국민”, “여성들”. 한국여성학회·비판사회학회 공동 심포지움 발표문,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 생명, 촛불정치 자료집』(2008. 9. 26.).
- 김정희 (2008). ‘반쪽 생명여성주의자’가 보고 듣고 느낀 ‘촛불’. 『환경과생명』, 57호, 95~108. (본문에 인용 없음)
- 김종엽 (2008). 촛불항쟁과 87년체제. 『창작과비평』, 141호, 36~59.
- 김진아 외 (2009). 『열정세대』, 서울: 양철북.
- 김창남 (1995).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역사비평』, 32호, 121~132.
- 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경제와사회』, 80호, 40~67.
- 박주연 (2008). 촛불을 든 여성들: 정치화 과정의 배경과 기제. 한국정치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문,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과제와 전망 자료집』(2008. 8. 7.).
- 백승욱 (2009). 경계를 넘어선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다: 촛불의 낙관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서울: 웅진씽크빅.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신진욱 (2009). 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과 ‘정당한 이해’의 이상. 『한국사회학』, 43집 1호, 23~55.
- 은수미 (2009). 촛불과 한국 사회 중산층의 자화상: 더 나은 촛불을 위한 한 연구자의 소고.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서울: 웅진씽크빅.
- 이득재 (2008). 촛불집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문화과학』, 55호, 90~109.
- 이상길 (2009). 순수성의 모랄: 촛불시위에 나타난 ‘오염’에 관한 단상.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서울: 웅진씽크빅.

- 이택광 (2009). 촛불의 매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촛불, 익숙하면서 낯선 꿈의 풍경들.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서울: 웅진씽크빅.
- 이해진 (2008).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경제와사회』, 80호, 68~108.
- 전효관 (2003). 새로운 감수성과 시민운동. 『시민과 세계』, 제3호, 311~325.
- 정태석 (2009).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경제와사회』, 81호, 251~272.
- 조명래 (2008). 초록정치의 눈으로 본 ‘촛불’의 재해석. 『환경과생명』, 57호, 61~80.
- 조정환 (2009). 『미네르바의 촛불』. 서울: 갈무리.
- 조한혜정 (2002).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조한혜정·양선영·서동진 (편), 『왜 지금, 청소년?』(82~109쪽).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혜정 (1999).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입시문화의 정치 경제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이숙 (2002). 『1970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주희 (2009). ‘괴물(음식)’, ‘촛불소녀’ 그리고 사이보그. 『진보평론』, 39호, 245~270.
- 한홍구 (2008). 현대 한국의 저항운동과 촛불. 『창작과비평』, 141호, 12~35.
- 홍윤기 (2009). ‘무자녀 촛불 항쟁’과 다중성 시민, 그리고 농성권력. 사회와 철학 연구회.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울력.
- Barfuss, T. (2008). Active subjects, passive revolution. *Cultural Studies*, 22(6), 837~849.
- Barnett, C. Clarke, N., Cloke P. & Malpass, A. (2008). The elusive subjects of neoliberalism. *Cultural Studies*, 22(5), 624~653.
-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 Blackman, S. (2005). Youth subcultural theory: a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concepts, its origins and politics, from the Chicago to postmodernism. *Journal of youth Studies*, 8(1), 1~20.
- Boltanski, L. (1999). *Distant suffering: morality,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W. (1993). Wounded attachment. *Political Theory*, 21(3), 390-410.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 Butler, J. (1999[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Dean, J. (1996). *Solidarity of str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rthing, R. (2010). The politics of youthful antipolitics: representing the ‘issue’ of youth participation in politics. *Journal of Youth Studies*, 13(2), 181~195.
- hooks, b. (1991).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e politics*, Boston: South End Press.
- Juris, J. & Pleyers, G. (2009). Alter-activism: emerging cultures of participation among young global justice activists.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57~75.
- Juris, J. (2008). Performing politics: image, embodiment, and affective solidarity during anti-corporate globalization protests. *Ethnography*, 9(1), 61~97.
- Mizen, P. (2002). Putting the politics black into youth studies: Keynesianism, monetarism and the changing state of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5(1), 5~20.
- Sayer, A. (2005). *The moral significance of cl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ivak, G. C.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G. Nelson & L. Grossberg (Eds.),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pp. 271~313). Urba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tahl, G. (2003). Tastefully renovating subcultural theory: making space for a new mode. In D. Muggleton &

- R. Weinzierl (Eds.). *The post-subcultural reader*. (pp. 27~40). Oxford: Berg.
- Taylor, C. (1991).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C. (2004). *Modern social imaginaries*. Duke University Press. 이상길 옮김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경제 공론장 인민주권』. 서울: 이음.
- Weinzierl, R. & Muggleton, D. (2003). What is ‘post-subcultural studies’ Anyway? In D. Muggleton & R. Weinzierl (Eds.). *The post-subcultural reader*. (pp. 3~23). Oxford: Berg.

### 신문잡지 기사

- 김이구 (2008. 5. 11).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 『오마이뉴스』, [온라인] Availabl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790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7908)
- 오현석 (2008.8.17) “촛불은 없고 … 끈들의 비열한 폭력,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7/200808170105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7/2008081701058.html)
-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을 키워보겠다는 건가 (2010. 7. 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1/201007010209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1/2010070102092.html)
- “지구촌 청년백수 ‘최다’ (2010.8.13). 『한겨레신문』, 1.
-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2010. 7. 2), 『조선일보』, 31.

(투고일자 : 2010.8.29, 수정일자 : 2010.10.13, 게재확정일자 : 2010.10.17)

ABSTRACT

## Rupturing in the Plaza: Teens in the Candle Demonstrations

Ye-Ran Kim\* · Hyo-Sil Kim\*\* · Min-Woo Jung\*\*\*

This study problematizes the youth's politico-cultural process of identification as becoming in the context of candle demonstration in Seoul, 2008. We examine their ethical subjectivity, communicative subjectivity and political subjectivity based on our analysis of depth interviews of teenage activists in the candle demonstrations. It is suggested that instead of naming the teens as the historical consequence of so-called 386 generation, or social product in the neo-liberal economic and educational conditions, we need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and dynamics of the youth's practice of identity politics: subjective pain and anxiety in daily life, creation and sharing of pleasure and fun of peer group communication are mixed into the pursuit of justice in their social activation of generation/gender politics.

Keywords: Candle demonstration, Girls, Boys, Ethical subject, Communicative subject, Political subject, Identity politics

---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s, Kwangwoon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